

## 제주의 영등신앙에 나타난 어업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중심으로

강지연\*

<차 례>

1. 들어가며
2. <칠머리당영등굿>과 영등신
3. 영등신화에 나타난 영등신과 영등굿의 특징
  - 1) 영등본풀이: 영등신앙의 기원
  - 2) 燃燈할망 전설: 영등굿의 유래
4. 제의의 원리와 생업의 상관성
  - 1) 연유담음: 생명 보존 기원
  - 2) 씨드림, 씨잠: 풍년 기원
  - 3) 영감놀이: 해상 사고 방지 기원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 어민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칠머리당영등굿>을 통해, 어민들의 생업 활동에서 무속 의례가 갖는 의미와 특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제의가 미치는 관련 약호들을 규명함으로써 신화적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소통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영등굿은 바다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 전해지는 풍어제(豐漁祭)이다. 섬마을 제주에서도 바다에서의 수확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많은 제의들이 행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매년 음력 2월에 치르는 영등굿이 가장 규모가 크고 성대하게 행하는 의식이다. 제주도에서 특히 바다 관련 제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지리적 특성상 '바다' 공간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생업의 수단이자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부터 제주에서의 무속의례는 전통적으로 민간 신앙의 중심 역할을 피하며, 개인의 종교 생활은 물론 마을 주민의 문화 행사로 자리매

\* 서강대 박사과정 수료

김하였다.

바다 지역에 사는 어민들에게 생업과 신앙 활동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에, 전승집단의 신화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제의에 참여하는 어민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날 행해지는 제의 상황과 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들, 뿐만 아니라 제의와 관련한 많은 콘텍스트 상황의 변수들이 오늘날의 신화와 제의가 갖는 현대적인 의미를 결정지을 것이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어업 관련 종사자들이며, 제의가 그들의 생업을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 있어서 굿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특히 실제 현실 세계에서 제의를 중시하는 인식의 발로를 신화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무속 의례 활동은 해상활동과 생활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해상 사고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바다 채취의 어업을 기원하는 어민들의 믿음은 그만큼 생업에 충실했음을 방증(傍證)하기도 한다.

주제어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신화, 제의, 신화적 세계관, 어업

##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제주도 무속에 관한 기존 논의의 성과를 활용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 어민들의 생활상에 주목한다. 그동안 무속 의례에 관한 논의는 다방면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제의의 구조와 형식, 내용을 분석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주목<sup>1)</sup>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 무가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sup>2)</sup>

1)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문무병, 『제주도 당 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 강지희, 『제주도 신방(神房)의 특성에 관한 연구: 巫俗儀禮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특히 제주도 굿에 관한 연구의 초석을 마련해준 현용준의 연구<sup>3)</sup>는 굿 현장에서의 상세한 상황 설명과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제의 모습과 절차, 현장에서 채록한 본풀이의 내용을 풀이하였고, 이에 후대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로 삼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자료 중심의 연구를 발판삼아 무가의 문학적 접근이 시도되었고, 최근에는 신화와 제의를 문화와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연구<sup>4)</sup>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기존의 제주 무가 연구는 대체로 의례의 절차와 기능, 그리고 무속 신(神)에 대한 신격의 특성에 주목하여 전승집단인 수용자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다소 소홀히 다룬 경향이 있다. 또한 굿의 현장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콘텍스트 변수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본풀이라는 기술텍스트와 제의라는 행위텍스트 모두를 고려한 논의가 부족했다. 무가 연구는 고정된 관점에서 논의를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승집단의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전승집단의 생업에서 제의를 통한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주목한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삶의 사건들은 개별적이며 보다 특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의 의례라는 형식을 통해 언어로 기술될 때에는, 그들이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전주희, 『제주도 무속 신화에 나타나는 증여 관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_\_\_\_\_,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4)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 『濟州島研究』10집, 제주도연구회, 1993, 13~65쪽.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류정일,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 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試論)』, 『여성문학연구』3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93~219쪽.

속한 문화와 사회의 맥락에 의해 보편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의례를 주관하는 심방과 이를 지켜보는 참여자들이 지향하는 제의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이러한 마을 공동 의례를 통해 제주의 지역적 특색과 생업 활동에 관한 문화 기술이 예측 가능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의례들은 다른 지역 보다 굿의 종류와 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마다 모시고 있는 당신의 성격에 따라 전해지는 당신본풀이의 수도 200여개에 달한다.<sup>5)</sup> 그 중 영등굿은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의로 꼽히며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마을 공동 제의이다. 일반적으로 영등굿은 마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어부와 선주(船主), 잠수들이 굿에 동참한다.<sup>6)</sup>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의가 그들의 생업환경에 어떻게 관련성을 갖는지, 즉 제의와 신화가 실제 어민들의 현실에 개입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이는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텍스트와 콘텍스트(context)의 양상을 살피고 그것의 소통 원리를 이해할 때, 제의와 생업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

5)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35쪽.

6) 제주에서는 해상안전과 풍농을 기원하는 목적에서 영등굿의 성격과 유사한 잠수굿이 있다. 잠수굿은 바다 전체를 관장하는 용왕신을 모시고 잠수들의 바다 채취 활동의 안전과 풍농을 기원하는 굿으로, 음력 3월 8일에 치르는 구좌읍 <동김녕리잠수굿>이 유명하다.

강소전은 『제주도 잠수굿 연구』에서 잠수굿과 영등굿 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 둘의 변별성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영등굿이 제주 전 지역에서 농업과 어업 등 생업 일반을 포함하는 의례였던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해촌 마을의 의례로 축소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해촌 마을에 더욱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보았다. 반면 잠수굿은 처음부터 해촌 마을에서 잠수라는 특정한 생업집단을 위한 의례였을 것으로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영등굿으로 논의를 한정함은 영등굿을 통해서도 잠수굿의 일면을 종합적으로 고찰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 연구: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5, 130~135쪽.

이다.

대개 콘텍스트에 대한 활용은 ‘텍스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텍스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황과 환경의 요건 정도로만 다루었다. 하지만 반 다이크(van Dijk)의 관점에 따르면, 콘텍스트는 객관적인 사회적 변수들이 아니고 참여자들의 정신 구조(mental models)에서 주관적으로 규정된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신화와 제의의 의미는 전승집단에 의해 필연적으로 역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층적인 해석을 요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주 어민들의 생업 현장인 바다 공간에 주목하여 제의를 살펴봄은 제의가 지닌 무한한 해석의 장에서 논의를 한정하여, 신화와 제의가 지니는 의미의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한다. 특별히 생업에 주목하여 콘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곧 그 참여자의 삶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의는 그들의 생업을 통해 더욱 긴요하게 전승된다.

어민들은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각종 해양 사고로부터 목숨을 잃기도 한다. 특히 바람의 신 영등이 꺾은 날씨를 불러 오면, 어로 작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생업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영등을 달래어 좋은 날씨를 구하고 생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어민들에게는 제의와 현실이 유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주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산간부락을 제외한 대부분이 어촌 마을임을 감안하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이 제의를 인식하는 방식을 통해 제주의 무속 문화를 이해하는 시초(始初)가 될 수 있다.

7) Teun A. van Dijk, *Discourse and Context: a socio-cognitive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나아가 제주도의 굿 문화에서 신화와 제의가 갖는 위치와 그 의미를 함께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의를 행하는 전승집단의 인식과 믿음은 그 가치와 의미를 결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승되는 신화 텍스트는 무형의 인식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단서가 된다.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관계에서 텍스트는 콘텍스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텍스트로 인한 콘텍스트의 변형과 재해석도 가능하다. 굿의 형식과 이때 구송되는 본풀이가 제의를 이해하는 1차 텍스트라면,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인지적, 심리적 믿음, 그리고 당시의 문화, 역사, 지리, 사회적 모든 요소들이 콘텍스트로서 작용하기에 이 둘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 2. 〈칠머리당영등굿〉과 영등신

제주의 굿은 그 대상이 되는 신의 성격에 따라 일반굿과 당굿으로 분류된다. 일반굿은 천지신(天地神)과 같이 섬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모시는 일반신(一般神)을 위한 제의지만, 당굿은 각 마을마다 모셔지는 분향신을 위한 제의이다. 분향신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산 활동, 삶과 죽음, 질병과 재난을 관장한다<sup>8)</sup>고 여기기 때문에 각 마을 주민들은 분향당(本鄕堂)을 세워 여기서 모셔지는 신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긴다.

하지만 영등굿이 본래 영등당에서 모셔지는 당굿이면서도, 특정 당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산촌이나 해촌 어디서든지 영등굿을 지내며 내륙 지역에서는 물론 제주 곳곳에서 열린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9)</sup> 영등신을 도

8) 문무병, 『民間信仰篇』, 『濟州의 民俗Ⅴ』, 濟州文化資料叢書5, 文化體育課 濟州道誌編輯委員會, 1998, 27쪽.

9) 전승되고 있는 제주도의 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굿, 조천읍 북촌리 영등

내(島內)에서 공통적으로 섬긴다는 점에서 영등굿은 당굿이면서 동시에 일반굿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영등신이 본향신 만큼이나 자신들의 생사(生死)를 주관한다고 믿는 제주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제주도의 음력 2월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 이 시기에 ‘영등이 들었다’고 하여<sup>10)</sup> 영등신을 바람의 신, 즉 ‘영등할망’이라 부른다. 또 영등신이 오는 2월 초하룻날부터 보름까지 제주 사람들은 생업 활동을 하는 대신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가 성대하게 치러진다.

제주시 건입동(健入洞)에 위치한 칠머리당은 해마다 영등굿을 치르며, 영등굿을 대표하는 당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곳에서 모시고 있는 신들은 모두 어로작업과 어선을 관장하는 신이다.<sup>11)</sup> 그런데 영등신은 제주에 와서 땅과 바다에 씨를 뿌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내방신(來訪神)으로 모셔지기 때문에, 특정 당에서 모시고 있는 당신의 성격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칠머리당의 당굿은 본래 그 마을의 본향신인 ‘도원수감찰(都元師監察) 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龍王海神婦人)’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칠머리당영등굿>에서는 정월에 당굿을 하는 대신,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 통해 영등신과 본향신을 함께 제사 지낸다. 그래서 <칠머

---

굿, 조천읍 함덕리 영등굿, 구좌읍 김녕리 잠수굿, 구좌읍 하도리 영등굿, 구좌읍 세화리 영등굿, 성산읍 오소리 영등굿, 성산읍 수산리 영등굿, 성산읍 신양리 영등굿, 성산읍 온평리 영등굿, 구좌읍 우도면 영등굿, 안덕면 사례리 잠수굿 등이다. 문무병, 『제주도의 영등굿』, 『비교민속학』13집, 비교민속학회, 7쪽.

10) 문무병, 이명진,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국립문화재연구소·민속원, 2008, 11쪽.

11) 칠머리당의 신은 모두 여섯이다. ‘도원수감찰(都元師監察)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龍王海神婦人)’, ‘영등대왕(燃燈大王)과 ‘선왕대신(船王大神)’, ‘남당하르방’과 ‘남당할망’이다. 박성석, 조구호,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고찰』, 『배달말』34집, 배달말학회, 2004, 199~217쪽.

리당당굿>을 <칠머리당영등굿>이라고도 부른다.<sup>12)</sup> <칠머리당영등굿>은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로 지정되면서 굿중놀이인 영감놀이가 삽입되었고, 의례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다.

<칠머리당영등굿>의 제차(祭次)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제차	세부 절차
1	굿의 준비	
2	초감제	베포도업, 제청신도업, 날과 국 섬김, 열명, 연유닭음, 군문열림, 분부사뽀, 주잔권잔, 새드림, 오리정 신청제, 칠머리당본풀이, 군웅덕담, 군웅본풀이, 서우갯소리, 산받음
3	본향뽀 추물공연	들어가는 말미, 가선공선, 주잔권잔, 금베리잔, 나까시리 놀림, 지장본풀이, 삼천군병길침
4	요왕맞이	베포도업, 날과 국 섬김, 연유닭음, 제청신도업, 군문열림, 분부사뽀 새드림, 오리정, 신청제, 방광침, 공신가신, 주잔권잔, 요왕질침
5	씨드림	씨점
6	도액막음	산받음, 주잔권잔
7	영감놀이	영감본풀이, 영감 청함, 배방선

굿을 하는 날의 상황에 따라 제차(祭次)의 세부적인 구성과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굿의 진행 과정은 대체로 위와 같으며, 이는 ‘청신(請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칠머리당영등굿>도 신을 청해 들이는 의식(1,2)으로 시작하여 신을 좌정시킨 후 음식을 권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3,4), 한 해 풍년에 대한 점을 보고(5,6), 마지막으로 신을 즐겁게 해주고 보내는(7) 굿의 절차를 따른다.

제주에서는 서사무기를 ‘본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곧 굿의 원리를

12) 2006년 6월 19일 <제주칠머리당굿>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문무병, 이명진(2008), 같은 책, 123쪽.

13) 문무병, 이명진(2008), 위의 책, 158쪽 인용.

풀어 나가는 ‘굿의 대본’(巫堂書)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굿은 <본풀이>를 ‘굿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sup>14)</sup> 본풀이를 구송하는 것은 대상 신의 좌정 경위를 말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굿의 참여자들이 신의 행적(行蹟)을 기억하도록 ‘풀이’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주목을 요한다. 섬기는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었는지를 풀이하는 것은 마땅히 그 신을 섬기는 당위성에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풀이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믿음에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런데 영등신은 본래 칠머리당의 본향신(本鄉神)이 아니기 때문에, <칠머리당영등굿>에서는 영등신의 본풀이를 따로 구송하지 않고 ‘칠머리당’의 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의 본을 푼다. 그리고 영등본풀이는 ‘영등당<sup>15)</sup>’의 당본풀이를 통해 전해진다. 본고에서 <칠머리당영등굿>에 주목하면서도 영등신과 관련한 본풀이는 영등당의 당본풀이를 통해서만이 논의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등할머님과 한집님(堂神)에 위로적선하고 있으면, 이 자손들 저 바다에 다니는 길 풀설 맑은 길 닦아주고 요왕수정국(龍王水中國) 다니는 길에 위험을 다 막아주고, 저 바다에서 동 바다밭 서 바다밭에서 먹을 운도 생기게 하고, 입을 운도 생기게 하고 망사리 가득 시켜주고, 이 자손들 없는 금전 없는 재물 생기게 해주시라고 하여 영등할마님께 위로적선 하였습니다.**<sup>16)</sup>

위의 인용문은 굿을 통해 얻고자 희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연유담음’ 제차에서의 한 대목이다. 영등신을 제장(祭場)안으로 청해 들

14) 문무병(2008), 같은 책, 『民間信仰篇』, 21쪽.

15) 영등당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에 소재하며 영등신이 직접 그 마을에 좌정한 것은 아니지만 영등신을 모시고 영등당을 세웠다.

16) 문무병, 이명진(2008), 같은 책, 165쪽.

이는 초감제에서 심방은 ‘영등 대왕, 영등하르방, 영등할마님, 영등별감, 영등호장, 영등좌수, 영등우수 모든 영감신을 창<sup>17)</sup>하여 영등신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는 ‘영등 할망’을 지목하여 소원을 빌고 있다. 말하자면 영등할망이 곧 영등신을 대표하는 신이 되거나 모든 신들을 아우르는 명칭이 됨을 알 수 있다. 사설의 내용을 보면, 바다 속에는 용왕신이 다스리는 요왕수정국(龍王水中國)이 있어서 자신들이 그 길목을 다닐 때에 위협한 것들을 막아주고, 바다밭을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영등신은 그들의 해상 안전과 금전운, 재물운을 주관 할 만큼의 신력(神力)을 지닌 절대적인 대상으로 존제한다.

영등신을 섬기는 일은 어민들에게 특별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의의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굿이라는 신앙 활동은 무엇보다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굿을 통해 얻는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어민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영등굿은 여느 제의에서 보다 참여자들의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강하다. 이러한 제주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조건들이 생업과 신앙에 배경이 되어 제주 지역만의 무속 문화를 만들어 갔다.

### 3. 영등신화에 나타난 영등신과 영등굿의 특징

신의 성격과 제의의 모습은 이때 구송되는 본풀이와 신화를 통해서 굿의 유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술 텍스트인 신화를 통해 행위 텍스트인 제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둘

17) 문무병, 이명진(2008), 같은 책, 161쪽.

은 상호 불과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텍스트만으로 제의와 신화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화는 제의의 기원과 신의 성격을 말해주며, 참여자들은 그 제의를 거쳐 신화의 인물을 기억하게 된다. 제의의 세계는 신화적 상상력 안에서 구축되고, 그것이 현실의 원리에서 재정립되어 제의와 신화, 그리고 현실 세계는 순환 고리에 놓여 있다.

영등신과 관련하여 전승되는 신화는 영등당에서 구송되는 두 개의 영등본풀이와 燃燈할망 전설로, 모두 3개의 설<sup>18)</sup>이 전해진다. 아래에는 진성기의 『濟州道 무가 본풀이 사전』과 『제주도 전설』에 있는 영등신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 1) 영등본풀이<sup>19)</sup>: 영등 신앙의 기원

### ㉠ 영등당

1. 한 어선이 폭풍우를 만나 위험에 처하다.
2. 용왕국에 사는 황영등이 어부들을 왕석 안에 숨겨 놓다.
3. 외눈배기가 어부들을 찾다.
4. 영등은 어부들에게 관음보살을 읊으면서 가라고 하다.
5. 어부들이 안심하고 관음보살 읊기를 그치자 다시 외눈배기 땅으로 끌려가다.
6. 영등은 다시 관음보살을 읊으라고 알려주며, 2월 초하루에 자신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다.
7. 어부들이 무사히 한수리로 돌아오다.
8. 영등은 외눈배기에게 죽임을 당하다.

18) 진성기의 『제주도 전설』(1992)을 보면 연등대왕(燃燈大王) 전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영등당본풀이의 ‘외눈박이 설’과 제목만 다를 뿐,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본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9) 秦聖麒, 『濟州道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년, 578~579쪽. 요약.

9. 영등의 시체는 삼도막으로 잘려 머리는 소섬에, 발은 한수리에 몸통은 성산리에 놓인다.
10. 어부들은 영등을 위해 영등제를 지낸다.
11. 영등은 제사를 받는 조상이 되다.

㉠ 영등당

1. 영등대왕이 유대감택에서 글을 가르치며 지낸다.
2. 영등대왕이 이월 초하루에 죽다.
3. 유대감이 영등대왕의 제사를 지낸다.
4. 영등의 혼령이 유대감택에 나타나 풍년이 들 것을 짐지해준다.
5. 영등의 혼령 덕분에 풍년이 된 것이 원천군 전역에 전해지다.
6. 영등대왕 덕으로 농사에 풍년과 해상에 해산물이 풍성해지다.
7. 제주삼읍에 모두 퍼져 사람들은 영등의 혼령을 잊지 않다.

영등본풀이에서 영등신은 해상(海上)에서의 신(㉠)과, 농경에 관련한 신(㉡)으로 등장한다.

㉠은 한수리에 고깃배가 풍랑을 만나 어부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들이 무사귀환 하는 과정에서 어선을 수호(守護)하는 영등신이 희생양이 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외눈박이는 바다에 사는 사나운 괴물인데, 풍랑을 만난 고깃배가 외눈박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본 영등이 어부들을 감취주었다.(2,3), 영등은 어부들에게 ‘관음보살을 부르며 가라’고 일러주어(4)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로 인해 영등은 외눈박이 괴물에게 죽임을 당하여(8,9) 어부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었다.

외눈박이와 영등의 대립 양상은 해상 사고와 무사귀환으로 대치될 수 있다. 바다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은 어선(漁船)이 풍랑을 만나 바다

에 침몰하게 되는 사고와 관련한다. 이때 영등은 한수리의 고깃배가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알고 구하러 간 행위로 그 지역의 당신이 되었다. 그런데 어부들은 영등이 알려준 대로 관음보살 읊기를 기억하지 않았다가 다시 위험에 처한다. 이에 어부들은 “영등들 초흐를날랑 날 생각을 흐여라.”(6)는 영등의 말을 기억(9,10)하여, 영등신을 믿고 따르는 풍습이 생기게 된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어부들은 영등이 죽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안전해 질 수 있었다. 또 영등의 시체는 각각 잘리어 ‘머리는 소섬에, 사자는 한수리에, 몸체는 성산에’ 올랐으니 제주 곳곳에 영등신의 혼이 깃들게 된 셈이다. 어민들이 영등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당한 자를 기리기 위함도 있지만, 영등제사로 인해 자신들이 처할 해상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본풀이 ㉠에서 영등은 죽기 전까지 특별한 일화 없이, 신직의 과정이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유대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장성하여 살다가 망년이 되어 죽었다.(1,2) 유대감은 영등의 혼을 위해 정성으로 제사를 지냈고,(3) 이에 영등의 혼이 나타나 유대감댁에 풍년이 들게 하여 보은(報恩)하였다.(4,6) 이 소식이 제주 전역에 퍼지자(5), 그때부터 제주 삼읍에서 영등을 위한 제(7)를 지내게 된 것이다.

이 본풀이는 영등굿이 갖는 효험(效驗)에 대하여 주목한다. 사람들이 영등을 위해 제사지내는 것이 ㉡에서는 해상 사고를 막기 위해, 그리고 ㉠에서는 풍년과 풍어를 위해서이다. 이는 산촌과 해촌에서 모두 영등굿을 지내는 이유에 타당성을 갖게 한다. 하지만 영등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거나 도와줌으로써 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수호신으로서 영등의 신격은 두 개의 본풀이 모두 동일하다.

2) 燃燈할망 전설<sup>20)</sup>: 영등굿의 유래

(가) 옛날에 한 포목 장사가 해외(중국?)에서 제주에 들어오다가 비양도(한림 앞바다) 근처에서 **홀연히** 태풍을 만나 익사하였다. 그의 시체는 네 쪽으로 찢겨서, 머리는 협재(한림읍), 몸뚱이는 명월(한림읍), 그리고 손발은 고내와 애월에 각각 표착하였다.

(나) 이 상인이 영등할망이라는 신이 되었다. **그의 명복을 빌어 주면 해상 사고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곡식도 풍성해진다 하여**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간(지금은 3일로 단축)을 제사 지낸다. 이때가 되면 모두 일손을 멈추고 심지어는 빨래조차 하지 않는다. 이 때에 농사를 지으면 흉작을 면하지 못하고, 빨래에는 구테기가 생긴다는 말이 전해 오기 때문이다.

(다) 영등할망의 제사는 수원(한림읍)에 본부가 있어서 집집마다 성미(誠米)를 내어 제물을 마련한다. 제사는 3일 동안이 영등맞이, 또 3일은 영등 보내는 차례로 행해진다. 이때의 날씨가 따뜻하면 옷 없는 영등이, 추우면 좋은 옷을 입은 영등이, 또 비가 오면 우장 쓴 영등이 오는 것으로 한다.

(라) 제사를 지낼 때는 무당이 주제(主祭)하게 되는데, **영등할망이 오면서 미역의 씨앗을 골고루 바다에 뿌렸다면 미역이 대풍이요, 씨앗 주머니를 잊었다면 미역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된다.** 그 외에도 금년은 산도(뱃벼)가 상이라면 산도가, 조가 상이라면 조농사가 잘 된다.

(마) 영등 제사의 중심인 수원에서는 제사의 마지막 날인 음력 2월 15일(지금은 3일)에 벗짚으로 배를 만들어 오색 단장을 하고, 갖가지 제물을 조금씩 실어 먼 바다로 띄어 보낸다. 이것은 영등할망이 떠난다는 표시인데, 이 때 동북풍이 불면 영등의 닢이라고 한다.

<1958년 1월, 한림읍 동명리 전설>

위의 신화에서는 굿을 하는 시기와 굿 할 때의 금기 사항 등이 제시되어 앞서 살펴 본 영등본풀의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즉, 燃燈할망 전설은

20) 秦聖麒, 『제주도 전설』, 白鹿, 1992년, 90~91쪽. 전문.

영등에 관한 신의 좌정 내력 보다는, 영등곳에 주목하여 말한다. 따라서 이 신화에서 영등곳의 유래와 간단한 의례 절차를 알 수 있으며, 신화와 제의의 관련 양상을 짚어 볼 수 있다.

(가)에서 한 포목 장수가 제주에 홀연히 나타나 익사하였는데, 그 시체가 제주 곳곳에 흩어진 것은 영등당의 영등본풀이(㉠)와 유사하다. 여기서는 영등신이 되기 전의 그 좌정 경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제주 전역에서 영등의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나)에서는 그 장수가 바로 영등 할망임을 밝히고, 그를 위한 제사 시기와 금기 사항을 알려준다. ‘그의 명복을 빌어 주면 **해상 사고**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곡식도 풍성**해진다’는 것은 영등할망이 해상의 일과 농사일을 모두 관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등본풀이에서는 영등의 직능이 각각 ‘해신(海神)’(㉡)과 ‘농신(農神)’(㉢)의 모습으로 나뉘어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둘의 신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또 제주의 풍속에 영등제를 지내는 동안에는 생업 활동이나 집안일을 하지 않는데, 신화는 그러한 금기의 내용과 유래를 제시해 준다.

(다)는 영등맞이와 영등 송별제에 관한 설명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굿 준비 과정, 제물 마련과 굿 하는 시기 및 절차를 알려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날씨를 보고 영등이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를 예측하는데, 그 날의 기상 상태는 곧 영등신의 옷차림과 관계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영등 할망은 자연의 운행을 관장할 만한 신력(神力)을 갖고 있기에, 영등신은 농업과 어업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이 될 수 있었다.

(라)는 영등곳에서 각각 씨드림과 씨점에 해당하는 의례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씨드림’은 “씨를 뿌리다(播種)”에서 쓰인 말로, 좁쌀을 바다에 뿌려 해산물이 많이 번식하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파종의례(播種儀禮)이다. 그리고 명석위에 좁쌀을 뿌려서 떨어진 좁쌀들의 밀도에 따라 그 해 해산물

의 풍흉을 점치는데 이것을 ‘씨점’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영등할망이 미역 씨를 바다에 뿌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로써 바다밭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영등할망이 바다밭과 농경지에 씨앗을 골고루 뿌려주어야 풍어와 풍농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는 영등신을 보내는 배방선의 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배방선’은 짚으로 만든 배에 제물을 실어서 영감신과 함께 바다 멀리 보내는 의례이다. 이때 제물을 백지에 싸서 수중혼(水中魂)과 바다의 용왕신에게 던져 대접한다. 배방선이 끝나면 참여자들은 바다에 좁쌀을 뿌려 바다밭의 풍년을 기원한다.

燃燈할망 전설의 전체 서사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영등굿의 기본 제차 과정과 닮아있다. 정리하면 ‘초감제-씨점·씨드림-배방선(도진)<sup>21)</sup>’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개의 신화가 그 신에 대한 내력을 들려주는 신성한 이야기라면, 이 신화는 ‘영등’에 대한 신의 내력보다는 영등굿의 형식 및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 4. 제의의 원리와 생업의 상관성

지금까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의례 절차와 신화 텍스트를 통해서 영등신과 영등굿의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에 참여하는 어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굿의 세부 절차를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기에, 영등할망 전설과 관련 깊은 소제차를 중심으로 제의 원리와 생업과의 상관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의는 ‘연유담음’과

21) ‘도진’은 심방이 신을 돌려보내기 위한 의례이다. 사람들이 ‘배방선’을 하러 나간 사이 제장에서 이루어진다.

‘씨드림’ 그리고 ‘영감놀이’이다. 이 제차들은 공통적으로 제의와 어업 활동과의 상관성이 깊다는 점에서 논의를 한정하기에 의미가 있다.

<칠머리당영등굿>에서 모든 제차와 놀이 방식은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무속 문화의 관습은 속신(俗信)에도 남아 있는데, 가령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영등날 딸 데리고 오면 하늬바람 불고 날이 좋고, 메누리 데려 오면 날이 굿나 영등 들어올 때 날 굿으면 나갈 때까지 굿나’라는 속신을 믿는다.<sup>22)</sup> 영등신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모녀가 같이 오면 날씨도 좋은 것이고, 고부(姑婦)가 같이 오면 그 둘의 사이가 좋지 않기에 굿은 날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은 신화 세계인 영등과 관련지으며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영등이 누구와 함께 왔는가를 짐치는 것으로 날씨를 예측하면, 어민들은 굿은날 어로 활동을 피한다거나 또 어느 때 활동하는 것이 좋은지를 예상하고, 일정을 계획할 수가 있다. 어민들에게 신화적 상상력은 현실 경험에 필요한 잣대가 되어준다.

### 1) 연유답음: 생명 보존 기원

신을 청해 들이는 초감제에서 ‘연유답음’은 굿을 하는 사유를 밝히고 ‘무엇 때문에’ 굿을 하는지 기원하는 바를 신에게 알리는 소제차(小祭次)이다. 여기서 신에게 아뢰는 심방의 사설을 보면 사람들이 영등신에게 소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장구>들어오며 나가며 모든 백성이 올리는 공사(公私)입니다. 무엇 때

22) 민운숙, 『공존의 신념으로서의 제주 잠수들의 속신』, 『실천민속학연구』18집, 실천민속학회, 2001, 123~165쪽.

문에 이 공사를 올리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옷과 밥이 없어 하는 공사 아닙니다. 옷은 빌려 입기도 하며 밥은 얻어먹기도 합니다. 부귀변천은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있는 것, 들고 도는 게 돈이 아닙니까, “춘초는 연연록, 왕의 손은 귀불귀법(春草年年綠, 王孫歸不歸)”이오며, “천지之間 萬物之中”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인간 목숨** 아닙니까?<sup>23)</sup> (중략)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방은 가장 귀한 것, 곧 '인간 목숨'을 구한다고 하여 국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다. 영등국은 그 자체로 어민들의 생사(生死)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다. '살기를 원하다'는 말에는 '죽지 않기를 원하다'의 의미를 함의한다. 환언하면, 영등국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제의라는 점에서, 삶 자체의 문제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요왕맞이 '연유담음'에서 심방의 사설도 이와 비슷하다.

어떤 일로 이 공사 말씀 여쭙는가 하면, 1년에 한번 영등 이월 초하루는 환영제로 맞이하고, 제주 한라산 일대에 400리 바다 육지 다니며 **육지에서 농사는 오곡풍등(五穀豐登)하고 육축번성(六畜繁盛)하고**, 가축은 목장마다 풍년들게 시켜주고, 해상으로 가면 우미, 전초, 소라, 전복, 미역, 풍년 들게 하고, 봄 상상, 여름 삼상, 가을 삼상, 겨울 삼상 시에 어느 달 어느 날 해상에 일 다니는 자손들, 첫째는 연락선, 둘째는 정기선, 셋째는 어장선, 말째는 무역선, 잠수님도 사신요왕[바다]에 나갈 때에 어느 풍랑에 표류하게 마라 동서남북 틀릴지라도 본향한집과 영등대왕님에서 **만곡(萬穀)풍년을 시켜주고, 어장선 마다 만선시켜 만선기 휘날리며 입항하게 해 주십시오**, 연락선도 어느 지방에서 **풍랑을 만나게 마십시오**, 그리고 정기선도 운항하다 **사고 어선과 충돌하여 크게 사고 당할 일 다 막아 주십시오**, 무역선은 외국 나가서 강도 절도 수도 적들 만나 **인명 단축할 일이나 어느 바다에서**

23) 문무병, 이명진(2008), 같은 책, 165쪽.

### 표류할 일 막아줌서.<sup>24)</sup>(중략)

이상의 내용을 보면, 영등굿이 농신과 해신의 신격을 두루 갖추면서도 특별히 산촌 지역보다 해촌 지역에서 더 성대하게 치러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육지에서 바라기는, ‘오곡곡풍등(五穀豐登)하고 육축번성(六畜繁盛)’을 소원하지만, 해상으로 가면 만선의 기도뿐만 아니라, 어선의 무사 안전을 축원한다. 또 해상에서 비는 바가 심방 사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술했다시피 영등신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점에서 농업과 어업에 모두 관계하고 있지만, 그 날씨로 인해 어민들은 생명 보존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는다. 굿은 날씨를 농사일에 풍년을 방해할 뿐이지만, 바다에서는 어선이 난파하거나 해상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는 태풍이나 돌풍 등 악천으로 인해 바다에서 활동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해난 사고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바다 공간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기에, 그들에게 바다는 살기 위한 일터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잃게 되는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편, 제주도는 예로부터 강풍다풍(強風多風)의 섬으로 알려져 있어, 제주에서 부는 바람은 기후의 특성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up>25)</sup> 바람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영등신은 실로 어민들의 생업 전반과 생사를 다스리는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신화에서 이 시기에 일 하는 것을 금기하는 이유를 2월의 제주 지역 날씨<sup>26)</sup>를 통해 보면, 신

24) 문무병, 이명진(2008), 같은 책, 211쪽.

25)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5권, 제주해역편, 경인문화사, 2002, 7쪽.

26) 제주도의 기후는 강한 바람의 재앙과 일시에 집중되어 그칠줄 모르는 비의 재앙, 그리고 땅의 갈증을 일으키는 가뭄의 재앙이 매년 거듭되는 세 가지 재앙, 곧 삼재(三災)로 상징된다. 예를 들어 1923년부터 1985년까지 62년 동안 제주도를 거쳐간 태풍은 138회를 연평균 2.2회를 기록한다. 문무병(1998), 같은 책, 587쪽.

화와 현실의 관계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음력 2월에는 제주 전역에서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와 농사일이나 어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풍이 부는 기후조건에서는 특히 해상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또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는 제주도 연안의 수온이 최저 평균(12.5~14.0℃)을 기록하여,<sup>27)</sup> 잠수들의 채취 활동도 어렵다.

영등할망을 위해 제를 올리면 ‘해상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금기 사항은 이 시기에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상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실로 곳의 참여자들은 영등제를 지내므로,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2) 씨드림, 씨점: 풍년 기원

제의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모두 신화세계 안으로 진입하여, 현실세계의 질서가 재정립된다. 이때 제의적 수행(performances)을 통해 당대의 관습이나 상황, 참여자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신화는 이러한 것들의 수행을 정당화하거나 이에 대한 인과론적인 설명을 제공한다.<sup>28)</sup> ‘씨드림’이라는 제차에서 잠수들은 좁쌀 주머니를 들고 바다에 나가 바다밭에 씨앗을 뿌린다. 여기서 좁쌀은 해초의 씨앗으로 여기는 대응물으로써, 그 씨앗이 촘촘하게 뿌려지면 해산물의 채취가 풍요로워진다고 여긴다. 잠수들은 이 해초씨가 담겨있는 망태기를 하늘로 높이 던졌다 받기를 수행하는데, 이는 그 씨앗이 하늘에서 내려 온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술 행위이다.

27) 해양수산부(2002), 같은 책, 10쪽.

28) William G.Doty, *Mythography: The Study of Myths and Ritual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0, p.59.

<같은 입을 입고 머릿수건을 다룬 소무가 제상 앞에 서서 사설을 시작한 다.> 어-요왕황제국, 요왕황제국 요왕 거복사제 세경에서 문수왕에 오곡씨를 내렸구나, 요왕으로 요왕 전복, 소라씨 천초 먹을 연을 내어 주십서, 어부에게는 바다를 막아 주십서, 신이 내려 하강하시려 합니다. 어부 신공사 올립니다.<sup>29)</sup>

좁쌀을 미역씨, 전복씨라고 여기고서 바다밭에 파종하는 것은, 바다를 물의 밭과 같이 여기고서 바다밭 가꾸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바다 세계를 다스리는 용왕신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는 바다에 살고 있는 요왕세경신<sup>30)</sup>에 관한 신화를 보면 그 기원을 알 수 있다.

물의 밭은 개인 소유의 밭으로 그 해에 노력한 수고로움을 척도로 삼아 수확에 대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바다밭은 사정이 다르다. 이곳은 마을 전체 어민들이 관리하며, 공동경작을 해야 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개인의 노력 여하 보다는 곳을 통해 신을 잘 대접해야지만 풍요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바다밭에서 인간은 오직 해산물을 가꾸거나 해초씨를 심을 수 없으며 수확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의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바다밭 다스리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농토에 파종하는 것이 사람의 수고로움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것이라면, 바다밭에 씨뿌리기는 신의 능력과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

29) 문무병, 이명진(2008), 같은 책, 232쪽.

30) 본래 세경본풀이는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큰 곳에서 불리는 본풀이이다. 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가 오곡종자를 가지고와서 농경신으로 좌정했기에, 그간의 연구에서 세경본풀이를 농경신화로 다루었음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관하여서는 농경문화와 농경신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잠수굿에서 불리는 '요왕 세경본풀이'는 원래의 세경신에 관한 본풀이 내용에 용왕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이다. 말하자면 논밭에서 풍년을 주관하는 세경신이 바다밭의 풍농을 책임지는 신으로 변용하여 구송되는 것이다.

능하다. 인간이 경작할 수 없는 바다밭을 신에게 부탁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노동의 수고로움을 곳으로 승화(昇華)하는 것이다.

제의는 바다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며,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들이 바다밭에 파종함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다밭에 해초가 풍성해지고 해산물의 수확이 많게 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 환경이지만 제의를 통해서만이 신화 세계에 진입할 수 있고, 그때에 바다 공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할 수 있다. ‘씨드림’이라는 의례 절치는 자신들의 육체적 노동으로도 바다밭 경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제의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말해주고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3) 영감놀이: 해상 사고 방지 기원

<제주칠머리당영등굿>에서 영감놀이는 영등송별제를 올리는 마지막 제차에 해당하는 의례로 모든 신들을 보낼 때에 치르는 굿중극이다. 본래 영등굿에서는 굿의 명칭에서 말해주듯 영등신을 중심으로 하여 마땅히 영등본풀이를 구송해야하지만, 여기서 ‘영등본풀이’는 구송하지 않고 ‘영감본풀이’를 구송하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제주에서는 ‘도깨비’, ‘참봉’을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영감놀이는 선왕(船王)인 도깨비신을 대접하여 보내는 것이다. 영감본풀이에서 영감신은 여인의 미모를 탐하여 범접하였기에<sup>31)</sup>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여 병을 치료하는 치병굿에서 행하던 놀이였다. 그런데 <칠머리당영등굿>은 당굿을 겸하고 있으면서, 선박을 가진 선주들과 어부들이 많이

31) 이는 ‘도깨비’를 조상으로 모신 집안에서 미친 환자가 생기거나 어부나 해녀(=과부)들이 아프면 치르는 <두린굿>에서 하는 경우다. 이때는 영감을 환자의 몸에서 떼어내어 달래고 보내는 주술적인 의례라 할 수 있다. 문무병(1998), 같은 책, 55쪽.

참여하기 때문에 <영감놀이>가 ‘굿중 놀이’로 삽입되어 있다.<sup>32)</sup> 영감놀이는 이제 어부들을 위해서 풍어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악운(惡運)을 막아주는 의례로서 놀이의 성격이 변모하였다. 영감놀이에서 심방과 영감의 재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심방이 <영감본풀이>를 구송한 후에, 영감탈(도깨비탈)을 쓴 소무(小巫) 두 명이 제장 안으로 들어온다. 수심방이 영감을 불러 놓고 어째서 여길 찾아 왔느냐고 묻자, 영감은 자기 막내 동생을 찾으러 왔다고 한다. 이때 수심방이 환자를 데려다 앉히면, 영감은 앞에 앉은 환자를 보고 자기 동생이 맞다고 한다. 영감은 자기 동생을 달래기 위해 실컷 놀음을 즐기고 흥을 돋운 뒤에 술을 마시고는 함께 떠나가길 권한다. 마침내 두 영감들은 음식을 실은 짚배를 들고 <서우젓소리> 장단에 춤을 추며 배에 함께 오른다.

영등신이 외눈박이 괴물들로부터 어부들을 수호(守護)하는 신이라면, 영감신은 해녀나 과부를 좋아하고 방탕한 신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영감신은 마을에 나쁜 운을 가져다주는 악신(惡神)이다. 자신들을 수호하는 영등신을 대접하는 일과 더불어, 악신으로 대변하는 영감신을 달래어 즐겁게 해주는 일 또한 어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악신은 자신들의 생업 활동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들을 상징한다.

이때, 영감신은 신의 위엄(威嚴)을 갖추지 못하고 익살스런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신들은 갓양태만 붙은 파립(破笠)을 쓰고, 갓만 붙은 베도포를 입었으며, 총만 붙은 떨어진 미투리를 신고서 한 뼘 못되는 곰방대를 물고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신이다.<sup>33)</sup> 이 놀이에서 전달하는 해학성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악신으로부터 공포와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2) 해양수산부(2002), 같은 책, 481쪽.

33) 문무병(1998), 『民間信仰篇』, 같은 책, 56쪽.

더욱이 구경꾼들도 함께 어울려 놀이에 동참하는데, 이 놀음을 끝으로 굿의 참여자들은 흥을 돋우는 악공의 반주에 맞추어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감놀이 제차에서는 제주도의 기후 환경이 좋지 못함을 대비하고, 해상사고의 불안함과 근심을 덜어 주어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제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감신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악신(惡神)을 달래주는 행위에는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운을 막기 위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해난 사고와 관련한 액(厄)을 막고, 예기치 못한 풍랑과 돌풍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이 놀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례 절치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정(不淨)을 막는 방편이 되어준다.

## 5. 맺음말

신화와 제의가 상호 역동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의 관계를 언급할 때 이들이 갖는 상호 관련성<sup>34)</sup>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또한 제의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장’<sup>35)</sup>인데, 이는 다양한 맥락과 문화적 약호가 개입하여 신화와 제의가 갖는 의미는 반드시 가변성을 수반

34) “제의와 신화는 상징이 작용할 수 있는 컨텍스를 제공한다.” (Mayerhoff 1974: 240) “제의는 신화적 언술의 다른 반쪽이다. 신화가 오직 완전한 실재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제의는 신화를 상관물로 토대를 둔다.”(Sproul 1979: 29) William G.Doty, *Mythography: The Study of Myths and Ritual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0, p.50.

35) 여기서 말하는 ‘현장’이란 개념은 연구자가 바라본 굿의 현장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관점에서 보는 물리적인 생업 활동의 공간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어민들에게 의식주 해결 공간으로서 생존과 직결된 생업 현장을 말한다. 필자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제의가 갖는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다. 만일 ‘신화가 제의라는 의사소통의 장에서 생성되는 메시지’<sup>36)</sup>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다시 현실이라는 소통의 장에서 참여자들에 의해 규정되고 해석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화와 제의는 정신의 구체화와 현시(現時)를 위한 매개체로서, 현실의 감각적인 경험<sup>37)</sup>에 관계할 수밖에 없다.

<칠머리당영등굿>에서 제의와 신화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 어민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며, 신의 도움이 있기에 바다밭 경작이 가능하게 된다. 제의를 통해 일상의 공간이 신의 영역인 신성의 공간과 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신화세계의 이야기가 수용자에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현실적인 체험으로 영향을 주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제주의 어민들이 <칠머리당영등굿>을 중시하는 인식의 연원(淵源)을 신화와 제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오늘날 제주에서 굿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밑바탕에는 신에 대한 어민들의 믿음이 깊은 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그 믿음의 발로를 생업의 현장, 곧 바다 공간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통해 살펴 본 것이다. 영등신이 오는 2월에는 실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이다. 또 바다는 인간의 힘과 노력이 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촌의 주민들에게 제의의 행함과 신앙의 힘은 절대적이며 필수적이기까지 하다.

제주 지역은 아직도 조사 보고 되지 못한 신당의 수가 수십에 달할 정도로 제주에서 무속 신앙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늘 신과 함께 살아

36) 오세정은 신화를 제의라는 의사소통의 장에서 생성되는 메시지로 파악하였다. 즉, 제의는 신화 담론을 생성하는 틀인 것이다. 오세정,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 원리』, 한국학술정보(주), 2005, 20쪽.

37) William G.Doty, *Mythography: The Study of Myths and Ritual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0, pp.49~50.

온 그들의 문화는 신화와 제의의 연장선에서 현실을 이어간다. 제의를 위해 들이는 모든 준비와 공이 그들에게는 노동의 수고로움과 풍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주에서는 다양한 신을 섬기며 제의와 함께 본풀이가 전해지는 한, 그러한 현실 인식의 바탕에는 신화적 상상력이 늘 자리 잡고 있다.

바다가 생활환경의 중심에 놓여 있는 도서(島嶼)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바다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 초월적인 신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순히 바다의 해상 안전과 풍어를 기원한다는 목적만으로 무속 문화가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의 대열에 들어설 만큼 삶의 질과 수준이 전과 다르고, 또 자연의 지리적, 문화적 조건이 매우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어로 작업의 조건이 개선되었다. 즉 신을 섬기는 어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전과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굿의 전승이 유지되고 있음은, 관습으로 굳어진 무속 신앙에 대한 제주민들의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 제주민의 해상 활동은 제주의 기후와 지리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잠수들의 어업 활동은 제주의 전통적인 생업의 수단이자, 제주 사회를 구성하는 어업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들은 제주의 대표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바다 환경을 개척하였고, 나아가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힘이 닿을 수 없는 데에 신앙의 힘을 빌리는 것은 비단 제주에서만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섬마을 제주에서는 어업 활동이 생계유지에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의는 먹고 사는 본질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한다. 나아가 제주의 무속 신화와 제의는 문화적인 마을 축제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생업에 더욱 긴요하게 작용한다.

참고문헌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1, 18~20쪽.
- 진성기, 『濟州道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년, 578~579쪽.
- 좌혜경,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서귀포향토문화백과 개념 용어 해설.
- 진성기, 『제주도 전설』, 白鹿, 1992년, 90~91쪽.
- 오세정,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 원리』, 한국학술정보(주), 2005, 20쪽
-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5권, 제주해역편, 경인문화사, 2002, 7쪽
-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 연구: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5, 130~135쪽.
- 김오진, 『조선시대 이상기후와 관련된 해양 활동』, 『기후연구』4(1),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2009, 10쪽.
-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 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試論)』, 『여성문학연구』, 3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93~219쪽.
- 문무병, 『제주도의 영등굿』, 『比較民俗學』 13집, 비교민속학회, 1996, 241~258쪽
- \_\_\_\_\_, 『民間信仰篇』, 『濟州의 民俗V』 濟州文化資料叢書5, 文化體育課 濟州道誌編輯委員會, 1998, 27쪽.
- 문무병, 이명진,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11쪽.
- 민윤숙, 『공존의 신념으로서의 제주 잠수들의 속신』, 『실천민속학연구』18집, 실천민속학회, 2011, 123~165쪽.
- 박성석, 조구호,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고찰』, 『배달말』, 34집, 배달말학회, 2004, 199~317쪽
- 오세정, 『신화의 의미작용과 제의화의 원리』, 『실천민속학연구』, 10집, 실천민속학회, 2007, 277~306쪽.
-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 『濟州島研究』10집, 제주도연구회, 1993, 13~65쪽.
-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진성기, 『제주도의 영등굿』, 『제주도』 53집, 제주도학회, 1972.

현용준, 『濟州道の 영등굿』, 『韓國民俗學』1집, 한국민속학회, 1969, 117~135쪽

Teun A. van Dijk, *Discourse and Context: a socio-cognitive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William G. Doty, *Mythography: The Study of Myths and Ritual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0,

## ABSTRACT

Fishery in Youngdeun Faith in Jeju  
- Focused on *Chilmoridang Youngdeunggut*

Kang, Ji-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into meanings and features of shaman ritual to the livelihood of fishermen through *Chilmoridang youngdeunggut*, which is deeply involved in the fishermen's lives in Jeju. Especially, it is due to understand communicative aspects between the mythical world and the real world by investigating relevant codes of ritual to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fishery industry.

*Youngdeunggut* is *Poong-eo-je*,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to the residents of the sea.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rituals in Jeju so as to pray for both a good yield and safety in the sea, among them is *Youngdeunggut*, held in February by the lunar calendar, the biggest and most magnificent. The reason why sea-related rituals are particularly vital in Jeju is that because of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 the 'sea region' may as well the living foundation as well as the means of livelihood to most residents.

Also, the shamanistic ceremonies in Jeju traditionally have meant to play a key role of folk beliefs for a long time and become not just personal religion also cultural events for the local residents. Paying attention to especially the sea-related rituals to reconstruct their lives will contribute to comprehending close correlation between mythology and ritual to them.

It seems that to the sea residents making their livelihood by fishing is in line with practicing religious activities.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is possible to grasp this tradition group's world view on the mythological world and to look into fishermen's lives, who take part in the ritual. Also, many variables in the ritual related contextual

circumstances as well as today's ritual situations and participant's psychological factors will determine the contemporary meanings of what mythology and ritual are today.

*Jeju Chilmoridang youngdeunggut* has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for living.

Especially, it is true that shamanism rituals and forms of religio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marine activities and mode of life by examining their expression of recognition through mythology, which puts importance on the ritual in the real world. The faith in making their own safety from marine accidents and praying for the fine yields from the sea throws a sideline on their being devoted to making livelihood by fishing.

**Key Words** Jeju Chilmoridang Youngdeunggut, Youngdeung myth, Ritual , Fishery, mythological world

논문투고일 : 2014. 11. 1

심사완료일 : 2014. 12. 1

게재확정일 : 2014. 12. 3